

최저임금위, 노-공 날선 공방속 '첫 발'...25일 2차 회의

부위원장에게 하한제 상임위원...운영위 구성 지난달 첫 회의 파행 책임 두고 공방 벌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공익위원 간사 사퇴를 주장하는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의 신경전 속에서 운영위원회 구성 등 첫 발을 뒀다.
최임위는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우선 최임위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하한제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운영위원회에는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등 5명이 지명됐다.
이들은 지난 3월 3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하고 비혼단신근로자 생계비 및 임금 실태와 최저임금 적용효과 조사 분석 등 심의 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에 심사 회부했다.
당초 1차 회의는 지난달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동계는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교수의 이력을 문제 삼으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 권 교수는 고용노동부의 '싱크탱크'격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와 상생임금위원회에 참여했다.
양대노총은 권 교수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조안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에 앞장섰다는 이유를 들어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박준식 최임위위원장과 권 교수를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회의는 그대로 파행됐다.

20여일 만에 재개된 이날 회의에는 최임위원들이 전원 참석했으나, 파행에 대한 책임을 두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권 교수의 사퇴를 주장하는 동시에 박 위원장의 공식 사과도 요구했다.
그는 "권 교수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가지고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올 한 해 위원회를 어떻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설명했어야 함에도 퇴장을 요구하며 회의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등 위원장의 역할을 저버렸다"며 "이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던 권 교수는 "생각의 다름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거나 위원회 운영 외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최임위의 존제나 운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퇴는 있을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노사의 의견이 다르고 개개인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에 기반해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된 의

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이상의 사퇴 요구를 자제해주시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위원회를 안에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사과 요구에 대해 별다른 대응 없이 회의 진행을 서둘렀으나, 근로자위원들이 재차 요구하자 "사과드릴 말씀이 없다"며 "위원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 회의 배석을 허용하는 것인데, 자격도 없고 저희가 전혀 모르는 역명의 제3자들이 들어와서 시위를 했다"고 거부했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심의의 관건은 사상 최초로 시급 1만원을 돌파할지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3.95% 이상일 경우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기게 된다. 노동계는 일찌감치 1만2000원이라는 과격적인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보다 24.7%(2380원) 높은 수준으로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으로 250만8000원이다. 경영계는 이같은 요

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날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계가 요구하는 주장은 현실을 도외시한 과도한 주장"이라며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사장들을 사지로 모는 주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도 "이번만큼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 입장뿐만 아니라 급여를 주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최저임금 인상에 힘입어하는 입장도 반영하는 심의를 기대한다"며 "지난해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공익위원 권고에 따라 연구 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논의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인 6월 말까지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뒤 8월5일까지 최종 결정해 고시한다.
다음 회의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김재환기자

'자영업자의 발' 국내 상용 전기차, 4년새 276배 증가

2018년 147대 → 2022년 4만574대 늘어나



자영업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화물트럭에서 전기차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3일 카이스트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상용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2018년 147대에서 지난해 4만574대로 276배 증가했다.
상용 전기차는 2019년 1656대, 2020년 1만5380대, 2021년 2만8897대, 2022년 4만574대

로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전체 등록 대수에서 상용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9년 4.7%에서 2022년 44.0%로 9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상용 전기차 신차 등록 대수는 1만5032대로 전년 동기 대비 71.5% 성장했다. 같은 기간 승용 전기차 신차 등록 대수(1만9154대)가 작년 동기보다 0.4% 늘어 나데 그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올 1분기 가장 많이 팔린 상용 전기차는 현대차 포터2 일렉트릭으로 총 7401대가 팔렸다. 그 뒤를 이어 기아 봉고3 EV(6757대), 현대차 일렉시티(127대), 디피코 포르토(59대), 현대차 카운티 일렉트릭(21대)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용 전기차 중 포터2 일렉트릭과 봉고3 EV가 차지하는 비중은 94.2%에 달한다
소비자가 상용 전기차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유지비와 정부 지원금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급성장한 배달시장 특수를 노린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상용전기차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여기에 '차박' 인기로 상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인구가 늘어난 것도 판매량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
그동안 국내 상용 전기차 시장은 현대차포터와 기아 봉고가 양대산맥으로 군림하면서 수입업체에겐 난공불락의 성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완성차 시장에 독점 깨기 열풍이 불면서 두 차종이 오랫동안 누려온 시장 구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노린 업체가 바로 중국 제조사들이다.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바이드는 지난달 6일 1톤 전기트럭 티포케이(T4K)를 출시했다.
당초 가격은 저렴한 것으로 예상됐지만 포터2 일렉트릭(4375만원)과 봉고3 EV(4365만원)보다 다소 높은 4669만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최대주행 거리 등 성능은 국내 모델들보다 앞선다. 이슬비기자

블랙앤데커, '무선 핸드 블렌더' 출시



이슬비기자

스탠리블랙앤데커코리아의 라이프 스타일 가전제품 브랜드 '블랙앤데커'는 3in1 헤드 교체형 '무선 핸드 블렌더'를 출시한다고32일 밝혔다.
'무선 핸드 블렌더'는 교체 가능한 헤드 3종이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작업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최대 15000 RPM의 속도로 블렌딩이 가능하다. 또한 무선 제품을 조리대를 이동 하더라도 끊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동의 제약이 없어 캠핑장 등 야외에서도 활용 가능하며, 간편하게 분리 후 세척할 수 있다.
다이얼 방식으로 설계된 5단계 속도 조절 기능으로 분쇄 속도도 조절 가능하다. 550g의 무게로 손목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전용 보관함이 제공돼 정리가 간편한 것도 특징이다.
블랙앤데커는 새로운 제품으로 라인업을 확장해 국내 라이프 스타일 가전제품 브랜드로의 입지를 보다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유나기자

'함께해요~ 순천농협!!! 오이데이 홍보 및 나눔 행사'로 소비촉진

순천농협 본·지점 및 파머스마켓 등 전 지사무소에서 실시

순천농협(조합장 최남휴)은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오이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지정한 오이데이를 맞이하여 '함께해요~ 순천농협!!! 오이데이 홍보 및 나눔 행사'를 순천만국가정원 서문광장에서 가졌다.
이 날 행사에는 순천시 이기정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협중앙회 조상명 순천시지부장, 순천농협 최남휴 조합장, 오이 대표농가, 순천농협 임직원 등 30여명이 함께 했다.
오이데이(5월 2일)를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게 된 이번 행사는 순천농협 본·지점, 파머스마켓, 문화센터 등 전 지사무소에서 실시하였다.
따라서 내방 고객에게 오이 및 전단지들 배부하여 홍보함으로써 소비촉진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순천만국가정원에서 관광객 1,600여명과 순천농협 전 지사무소 방문 고객 등 10,000여명에게 오이 나눔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순천 오이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알리게 되었다.
순천농협 최남휴 조합장은 "순천농협에서는 오이데이를 맞이하여 내방 고객과 관광객에게 오이 나눔 행사를 가정으로써 순천 오이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촉진을 통하여 농가 소득 지지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오이데이 행사를 순천시, 농협

순천=김승호기자

쿠팡, 최대 70% 자동차용품 할인전

쿠팡은 가족단위 나들이가 많아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자동차용품 최대 70% 할인하는 자동차용품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할인전은 볼스윈, 소낙스, 더클레스, 지오바니, 대한, 지엠지모터스, 로드몬스터 등 40여개 브랜드의 5300여 개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대표 상품으로는 ▲로드몬스터 엔진 부스트팩 ▲아이엘 듀 햇빛가리개 ▲모런 차량용 무선 미니 에어컨 청소기 ▲더클레스 물약스 및 실내 코팅제 등이 있다.
행사, 미세먼지, 잦은 야외활동 등으로 셀프 세차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즈인 점을 감안해 기획전 내에 '셀프 세차용품 특가전'도 마련했다. 세차 초보를 위한 8종 세트(바스·스핀지·



바킷·디테일러·타일 3종 등)으로 구성된 세트 상품 등을 만날 수 있다. 쇼핑 편의를 위해 할인쿠폰이 적용되는 상품만 모바일 수 있는 탭도 별도로 준비했다. 뉴스시

1분기 생애 첫 집 매수자 역대 최소...고금리·집값 하락 영향

생애 최초 주택 매수 53.3%는 30대 이하

올해 1분기 전국에서 생애 첫 집을 마련한 매수자가 1분기 기준 역대 최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타임이 벌원 등기정보광장을 살펴본 결과, 올해 1분기 생애 처음으로 집합건물을 구매한 매수자는 6만810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벌원 등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치다.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자는 지난 2021년 1

분기 14만896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뒤 2022년 1분기 8만7660명으로 낮아졌고, 올해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자 중에서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저를 보였다.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자 6만8105명 중 30대 이하의 매수자는 3만6296명으로 전체의 53.3%의 비중을 보여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비중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올해 1분기 서울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자는 5172명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이어 경기 2만3510명, 인천 5635명, 부산 4966명, 충남 4698명, 대구 3326명, 경남 3209명, 대전 2768명, 광주 2492명, 전북 2471명, 경북 2417명, 전남 1781명, 강원 1651명, 충북 1536명, 울산 1079명, 세종 721명, 제주 673명 등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금리가 높은 데다 집값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순욱기자

애경산업, '루나' 썬피 클리어 파우더 출시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의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루나는 하루 종일 투명하고 보습한 피부로 가꾸주는 '썬피 클리어 파우더'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루나 썬피 클리어 파우더는 맑고 피지 분비가 활성화되기 쉬운 계절을 대비해 모공은 답답함 없이 메꾸주고 피부의 번들거리는 유분기를 잡아 보습한 피부 결을 유지해주는 파우더다.
피부의 속 건조 없이 겉면 유분기를 잡아 메이크업이 들뜨지 않게 해주며, 민감한 피부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했다. 최이슬기자